

# 국내 도서관 불안 연구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 A Systematic Review on the Domestic Research of Library Anxiety

박 현 지 (Hyunji Park)\*\*

박 주 현 (Juhyeon Park)\*\*\*

### 〈 목 차 〉

I. 서론	IV. 연구결과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 방법	

**요약:** 이 연구는 국내 도서관 불안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국내 도서관 불안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한국학술지 인용색인(KCI) 및 한국학술정보(KISS)에 2004년부터 2023년 5월까지 게재된 도서관 불안에 관한 국내 (우수)등재지 논문을 수집 및 검토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총 23편의 분석 논문을 채택하였다. 채택된 논문은 PRISMA의 체계적 문헌고찰 절차에 따라 발행 연도별, 연구 주제별, 연구 유형별, 연구 방법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 주제에서는 집단별 도서관 불안 측정 연구가 12편(52.2%)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구 유형에서는 응용연구가 18편(78.0%)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 방법에서는 양적연구가 18편(82.6%)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통해 국내 도서관 불안에 대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도서관 불안, 연구동향, 체계적 문헌고찰, 도서관 불안척도, 공공도서관, 이용 활성화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future library anxiety research in Korea that can contribute to resolving library anxiety by examining research trends on the Library Anxiety. For the purpose, a systematic review was selected to derive answers to research questions by examining and analyzing the trends of preceding researches, and the final 23 studies according to the PRISMA procedure were designated as analysis targets. As a result, in the research topics, there were 12 studies (52.2%) measured library anxiety by group, 18 studies (78.0%) were applied research in the type of research, and in the research methods, quantitative research was mainly used in 18 studies (82.6%). Through the analysis results, it suggests further research directions for domestic library anxiety.

**KEYWORDS:** Library Anxiety, Research Trend, Systematic Review, Library Anxiety Scale, Public Library, Use Activation

\* 본 연구는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학술대회논문(2023)을 수정·보완한 것임.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hyunjip@jnu.ac.kr / ISNI 0000 0005 1267 6283) (제1저자)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park51566@jnu.ac.kr / ISNI 0000 0004 6814 4449) (교신저자)

• 논문접수: 2023년 8월 22일 • 최초심사: 2023년 8월 31일 • 게재확정: 2023년 9월 6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4(3), 271-293, 2023. <http://dx.doi.org/10.16981/kliss.54.3.202309.271>

© Copyright © 2023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은 사회적 경제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사회이다. 2020년 통계 결과, 인구 10만 명당 24.1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조사되었다(OECD.stat, 2023). 이는 OECD 회원국 42개국 중 1위이다. 또한, 불안장애로 인한 국내 환자는 2017년 대비 2021년에는 32.3%가 증가하였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 이러한 결과는 2018년에 실시한 웰빙에 대한 만족도 응답 결과 23개 조사 대상 국가 중 한국의 스트레스 지수가 1위인 것과 맥을 같이 한다(Cigna, 2018).

도서관은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최고의 기관이다. 또한, 도서관은 전통적으로 휴식공간을 제공해왔으며 지식의 탐구와 타인의 삶에 대한 간접경험으로 인한 치료 효과를 제공해 왔다. 도서관은 미술관의 역할 및 음악을 통해 마음의 양식과 마음의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였으며(박영애, 2023), 스트레스 치유를 위한 강좌 개설 및 독서치료 프로그램(노영희, 김윤정, 2020)을 제공하였다. 동물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마음의 안정을 제공하기도 하였다(박창균, 2020).

도서관은 시민들이 편하게 방문하여 지식정보를 탐구하거나 타인의 삶 속 이야기를 통해 감정을 정화하는 최적의 장소이다. 이러한 도서관에 접근하고 이용하는 것에 누군가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 공공기관인 도서관의 기능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는 도서관 방문자 수 격감을 불러왔다. 1관당 공공도서관 방문자 수는 2018년에 253,464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142,160명으로 약 51%의 감소율을 보였다(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2023). 코로나19로 인한 원인을 감안하더라도 팬데믹 이전의 상황으로 복원되기에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도서관 불안의 완화는 도서관 이용률의 증가와 연결되며, 도서관 이용자의 질적인 만족도 향상과도 연결된다고 할 때 도서관 불안에 관한 연구는 필요하다. 따라서 도서관 불안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공공장소에서의 묻지마 범죄로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는 시기에는 시민들이 도서관 불안을 어느 정도로 느끼고 있으며 실제 도서관 이용률과 독서 이용률에 어떠한 변화를 주는지를 조사하고 연구되어야 한다.

도서관 불안(Library Anxiety)이라는 용어는 1986년에 발표한 Mellon의 연구로 문헌정보학 분야에 공식화되었으며 이에 대학 및 연구도서관 협회(College & Research Libraries)의 75주년 기념 가장 중요한 연구논문 7개 중 하나로 선정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Free, 2014). 이후 1992년에 도서관 불안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인 도서관 불안척도(Library Anxiety Scale: LAS)가 개발되었다(Bostick, 1992).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집단에 따른 도서관 불안을 측정하여 도서관 불안 완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남태우와 황옥경(2005)의 연구를 제외하면 도서관 불안 이론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도서관 불안 관련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는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을 적용하여 국내 도서관 불안 연구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국내 도서관 불안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도서관 불안에 대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 문제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도서관 불안 연구 관련 발행 연도, 연구 주제, 연구 유형, 연구 방법, 연구결과의 동향은 어떠한가?

둘째, 국내 도서관 불안 연구 관련 양적연구의 연구대상, 도서관 관중, 측정도구, 독립변인의 동향은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도서관 불안

#### 가. 도서관 불안 개념 및 요인

도서관 불안은 Mellon이 문헌정보학 분야에 심리학적 개념을 도입하여 만든 이론으로서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느끼는 불안, 두려움, 압도당하는 기분, 해매는 느낌, 무기력, 혼동, 공포 등이라 정의하였다(Mellon, 1986). Mellon은 6,0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2년 동안 개인 인터뷰를 통해 도서관 불안을 증명하는 질적연구를 수행한 후 도서관 불안을 느끼는 원인을 ① 도서관의 규모에 위압감을 느낌, ②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함, ③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알지 못함, ④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함으로 규명하였다.

Reitz는 “도서관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경험이 부족한 이용자가 느끼는 혼돈, 두려움, 그리고 좌절”이라 하였으며(Reitz, 2014), 국내의 『문헌정보학용어사전』에서는 “도서관에서 이용자가 자료를 찾을 때에 주로 이용경험 부족으로 느끼는 혼란, 걱정, 실망 등의 통칭”이라 정의하고 있다(한국도서관협회, 2010).

Mellon(1986)은 학생들의 도서관 불안의 정도는 ① 적절한 도서관 이용 능력 부족, ② 동료들에 비해 무능한 도서관 이용 능력, ③ 무능에 대한 창피함과 같은 각자의 믿음에 따라 악화된다고 하였으며, Bostick(1992)은 도서관 이용에 대한 서투른 학생들의 느낌에 따라 도서관 불안의 상황적 요인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특히 Onwuegbuzie는 부정적인 사회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도서관 불안의 중요한 선행요소라 규명하며 사회적 수용성이 낮은 학생은 도서관 업무와 관련해 자신에

대해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고 하였다(Onwuegbuzie, Jiao, & Bostick, 2004). 결론적으로 도서관 불안은 개인에게 내재된 특성인 기질적 요소 및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발생하는 특정한 요소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 나. 도서관 불안 측정

도서관 불안 이론이 제안된 후 도서관 불안의 정도를 정량화하여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되었다. 지금까지 국내의를 포함하여 4개의 도서관 불안 측정 도구가 개발되었다.

국외에서는 1992년에 개발된 Bostick의 도서관 불안 척도(Library Anxiety Scale, 이하 LAS)와 2004년에 개발된 Kampen의 다차원 도서관 불안 척도(Multidimensional Library Anxiety Scale, 이하 MLAS)가 있다. 국내에서는 2006년에 박현영에 의해 LAS와 MLAS를 기반으로 한 Korean Library Anxiety Scale(이하 KLAS)이 개발되었고, 2010년에 박주범과 정동열에 의해 Digital Library Anxiety Scale(이하 DLAS)이 개발되었다.

Bostick(1992)은 전문가 집단의 검증과 사전조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43개의 문항에서 51.8%의 설명력을 가진 5개로 구성된 요인을 추출하였다. 설명력의 크기대로 5개의 요인을 제시하면 '도서관 직원으로 인한 장벽', '정서적 장벽', '도서관의 안락함', '도서관에 대한 지식', 그리고 '기계적 장벽'이다. 연구 결과, 학생의 학력 수준(community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과 성별에 따른 도서관 불안 척도의 점수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던 반면에 나이에 따른 도서관 불안 척도의 점수는 직원으로 인한 장벽, 도서관의 안락함, 그리고 도서관에 대한 지식 부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도서관 불안 완화 정책 추진에 있어 성별보다는 나이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Kampen(2004)은 박사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MLAS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는 박사과정 학생들의 도서관에 대한 불안 정도와 이들이 온라인 자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지를 규명하기 위해 LAS 문항에 박사과정 학생들이 느끼는 불안 요인을 추가하여 총 6개 요인의 54개 문항으로 구성된 MLAS를 개발하였다. MLAS에서 측정하고 있는 여섯 가지 요인은 '도서관 이용시 편안함과 자신감', '정보검색 과정의 일반적 불안감', '직원으로 인한 장벽', '도서관이용방법에 대한 중요성 인지정도', '기기에 대한 편안함과 활용능력', 그리고 '도서관의 안락함'이다.

박현영(2006)은 국내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도서관 불안 척도를 개발하고자 KLAS를 개발하였다. KLAS는 6개의 요인과 4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6개의 요인으로는 ① 물리적·환경적, ② 도서관 이용 및 지식, ③ 과제 및 연구, ④ 디지털 정보, ⑤ 도서관 직원, ⑥ 심리적·정서적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박주범(2010)은 정보기술 발달로 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관심은 증폭하였으나 이용자가 느끼는 어려움이나 불안 등과 같이 정서적인 측면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7개의 요인과 39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DLAS를 개발하였다.

〈표 1〉 도서관 불안 측정도구별 요인

연구자	도구명	요인
Bostick (1992)	LAS (Library Anxiety Sca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 직원으로 인한 장벽</li> <li>• 정서적 장벽</li> <li>• 도서관의 안락함</li> <li>• 도서관에 대한 지식</li> <li>• 기계적 지식</li> </ul>
Kampen (2004)	MLAS (Multidimensional Library Anxiety Sca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안함과 자신감</li> <li>• 정보검색에서 일반적 불안함</li> <li>• 도서관 직원으로 인한 장벽</li> <li>• 도서관이용방법에 대한 중요성 인지도</li> <li>• 기기에 대한 편안함과 활용능력</li> <li>• 도서관의 안락함</li> </ul>
박현영 (2006)	KLAS (Korean Library Anxiety Sca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리적 · 환경적</li> <li>• 도서관 이용 및 지식</li> <li>• 과제 및 연구</li> <li>• 디지털 정보</li> <li>• 도서관 직원</li> <li>• 심리적 · 정서적</li> </ul>
박주범 (2010)	DLAS (Digital Library Anxiety Sca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서적 문제</li> <li>• 자원</li> <li>• 이용지식</li> <li>• 보안</li> <li>• 언어</li> <li>• 기술적 문제</li> <li>• 과제영역</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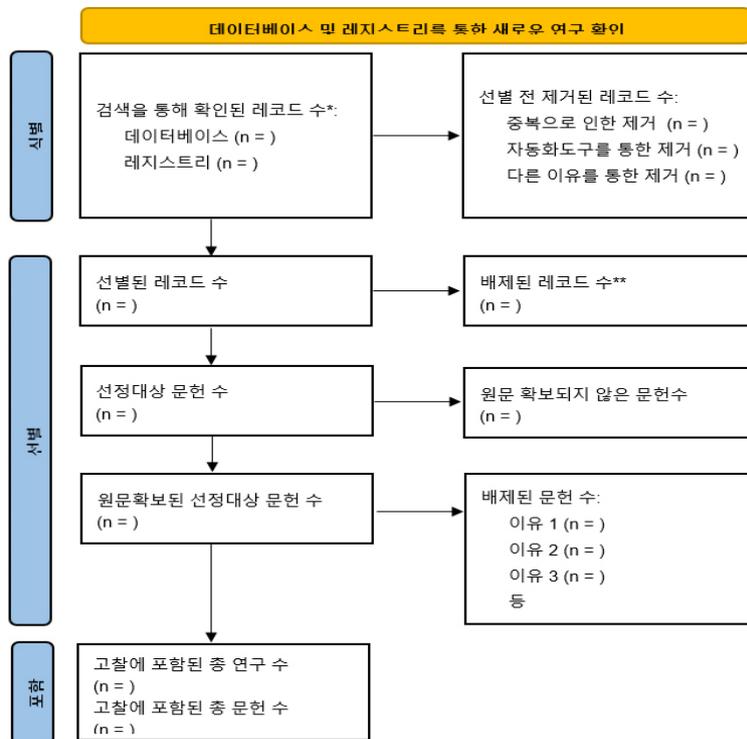
위에서 살펴본 지금까지 개발된 도구 중 LAS와 MLAS는 미국의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개발되어 그들의 도서관 불안을 측정하기 적절한 도서관 불안 관련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KLAS는 LAS와 MLAS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도구로서 그 요인에는 과제 및 연구공간으로서의 대학도서관 환경이 적용되어 있으며 DLAS는 디지털과 관련된 요인들이 추가되어 국내 디지털 도서관 환경이 반영된 측정 도구이다. DLAS의 요소를 제외하고 오프라인 환경에서는 도서관 직원에 대한 장벽, 도서관의 물리적 공간, 도서관 이용에 대한 지식 그리고 기기사용능력이 공통적인 요인이라 볼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측정도구의 요인은 연구 설계에 맞게 변경되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이 대표적인 도서관 불안 측정 도구 몇 가지를 도서관 불만의 측정 대상 및 상관관계 분석 대상에 적용하여 사용하였으나, 이 도구들이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점을 고려하면 그 외의 연령대 및 집단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유사한 요인인지 아닌지에 관한 의문이 생긴다. 또한 도구가 개발된지 10년 이상이 지난 점을 살펴보면 디지털화된 현대에서 변화된 도서관의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보활용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도서관 불안 요인에서 하위 개념 중 정보활용 능력과 관련된 직접적인 요인을 구성하여 도서관 불안 측정 범위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체계적 문헌고찰의 문헌선정 방법

PRISMA(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는 미국 병원 경영 및 정책 연구소(Center for Evidence-Based Management)와 캐나다 오타와 주립대학(University of Ottawa)의 연구진 등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2009년에 PRISMA 지침이 처음 발표되었다. 이 지침은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명확한 단계를 제시해주어 연구결과를 표준화된 형식으로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PRISMA는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에서 보고를 위해 작성하는 근거 기반의 최소 항목 집합이다. PRISMA는 사회과학분야 중 보건학에 주로 쓰여 치료법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의 주제에 따른 중재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에 중점을 두지만(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1), 그 이외의 분야에서 연구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체계적 문헌고찰을 사용하더라도 연구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PRISMA, 2023). 최근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도 PRISMA를 활용하여 초등학생의 읽기이해력 향상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실험연구들을 대상으로 체계적 문헌고찰이 수행되었다(주소현, 이수상, 2021). 2020년에 한국어로 번역된 PRISMA 지침서가 제공되고 있으며, PRISMA의 문헌선정 흐름도는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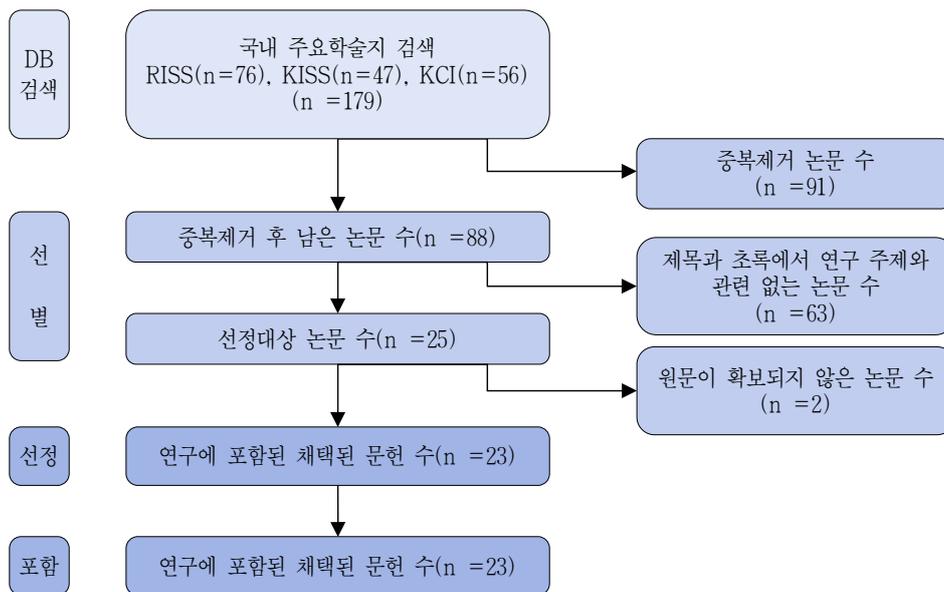


<그림 1> 2020 PRISMA 문헌선정 흐름도(한국어버전)

### Ⅲ. 연구 방법

#### 1. 문헌채택 과정

연구의 체계적 분석을 위해 PRISMA의 문헌 선별 절차에 맞도록 수정하여 다음 <그림 2>와 같이 진행하였다. 대상 문헌 수집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RISS(한국학술교육정보)와 KISS(한국학술정보), KCI(한국한술지인용색인)를 주요 학술논문 전자데이터 베이스로 활용하여 ‘도서관 불안’을 키워드로 검색하였다. 도서관 불안 관련 키워드 추출을 위한 선행연구들의 키워드 분석 결과, ‘도서관 불안’, ‘도서관 불안 척도’, ‘대학도서관’, ‘Library Anxiety’, ‘Library Anxiety Scale’, ‘Public Library’, ‘Information Literacy’ 등이 있었다. 여기에서 범위가 넓은 키워드를 제외하고 도서관 불안이 도서관 불안 척도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도서관 불안’을 검색 키워드로 선정하였다.



<그림 2> PRISMA 문헌채택 흐름도

그 결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2004년부터 2023년 5월 사이에 발행된 논문 RISS에서 76편, KISS에서 47편, KCI에서 56편으로 총 179개의 논문 중 세 곳에서 중복된 논문 91편을 배제하였다. 선정된 88개의 논문 중 ‘선별’ 단계에서는 제목과 초록에서 연구 주제와 관련 없는 논문 63개를 제외하였으며 원문이 확보되지 않은 논문 2건을 제외하여 ‘선정’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23개의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채택하였다.

이 연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PRISMA 2020 체크리스트(Korean)를 활용하고 한 명의 연구자가 PRISMA 절차에 따른 연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에 대한 다른 연구자의 검토과정이 포함되었다.

## 2. 논문 분석틀

국내 도서관 불안 연구 관련 문헌 분석을 위한 기준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태우, 황옥경(2005)의 도서관 불안 이론 고찰을 제외한 연구 동향 분석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제별 분류로는 분석 방법론적인 측면의 연구를 참고하여, 도서관 불안 이론 연구, 측정 도구 개발 및 타당성 관련 연구, 도서관 불안 이론과 기타 변인 간의 상관연구, 집단별 대상의 도서관 불안 측정연구로 구분하였다(김미란, 유원경, 임현수, 2011).

둘째, 연구 유형으로는 Neuman(2014)을 참고하여 사회과학 분야 연구의 이용에 따른 분류로 평가연구를 제외한 기초연구, 응용연구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기초연구는 도서관 불안 원인 및 증상에 관한 연구, 도서관 불안 측정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를 의미하며, 응용연구는 대상별 도서관 불안을 측정 혹은 도서관 불안과 변인 간 관계 및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도서관 불안을 완화시키고자 해결책을 제시하는 연구로 규정하였다.

셋째, 연구 방법의 분류는 양적연구, 질적연구, 혼합연구, 문헌리뷰로 구분되었으며 특히 연구 수가 많은 양적연구를 연구대상, 도서관 관중, 측정도구, 독립변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분류한 연구의 주제에 따라 각 논문의 연구 결과를 분석하였다. 논문 분석 기준과 절차에 따른 문헌 분석틀은 <표 2>와 같다.

<표 2> 논문 분석틀

구분	내용	
발행 연도	2004년 ~ 2022년	
연구 주제	도서관 불안 이론 연구, 측정 도구 개발 및 타당성 관련 연구, 도서관 불안 이론과 기타 변인 간의 상관연구, 집단별 연구 대상의 도서관 불안 측정연구	
연구 유형	기초연구, 응용연구	
연구 방법	양적연구	연구대상, 도서관 관중, 측정도구, 독립변인
	질적연구	-
	혼합연구	-
	문헌리뷰	-
연구결과	결론 및 제언	

## IV. 연구결과

문헌채택 흐름도에 따라 선정된 국내 23개의 도서관 불안 관련 연구의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개발한 위의 <표 2>의 논문 분석틀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발행 연도별 분석

연도별 연구 빈도 동향 분석 결과, 국내 학술지의 도서관 불안 연구는 2004년 처음으로 게재되었으며, 2004년 1편, 2005년 1편, 2006년 3편, 2007년 1편, 2008년 1편, 2010년 3편, 2011년 1편, 2012년 2편, 2013년 2편, 2015년 2편, 2016년 1편, 2020년 1편, 2021년 2편, 2022년 2편으로 매년 0.9편 정도가 게재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도서관 불안 완화 및 해소에 대한 연구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불안 연구가 부족함을 보여준다.

### 2. 연구 주제별 분석

분석 대상의 논문을 4개의 연구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연구 주제별 논문 수(%)

연구 주제	논문 수(n)	비율(%)
집단별 대상의 도서관 불안 측정연구	12	52.2
도서관 불안 이론과 기타 변인 간의 상관연구	7	30.4
측정 도구 개발 및 타당성 관련 연구	3	13.0
도서관 불안 이론 연구	1	4.4
계	23	100.0

연구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 '집단별 대상의 도서관 불안 측정연구'가 12편(52.2%)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서관 불안 이론과 기타 변인 간의 상관연구'가 7편(30.4%), '측정 도구 개발 및 타당성 관련 연구'가 3편(13.0%), '도서관 불안 이론 연구'가 1편(4.4%)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불안 자체에 관한 이론 연구가 한편에서 그치는 것으로 보아 추후 연구를 통해 도서관 불안의 이론적인 고찰 및 범위 재지정 등 심층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도서관 불안의 측정도구가 현재까지 4개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들 도구가 모든 연령대와 관중 등을 수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도구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 3. 연구 유형별 분석

연구 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 도서관 불안 이론과 척도 개발과 같은 기초연구는 5편(22.0%)이었으며 대상 설정 후 도서관 불안을 측정하거나 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한 응용연구는 18편(78.0%)으로 나타났다. 응용연구는 주로 단기간에 소규모로 진행되어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결과를 제공하므로 연구의 설계 또는 연구 결과의 강점을 강조하되 한계 역시 제시되어야 한다(Neuman, 2014). 따라서 구체적인 대상으로 도서관 불안 측정을 실시하여 그에 맞는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한 응용연구는 연구의 설계가 구체적이며 실용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응용연구와 기초연구는 방법론적으로 중점을 두는 것이 다르며 특히 응용연구는 응용 환경의 설계에서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기에(Neuman, 2014) 도서관 불안에 대한 응용연구 역시 측정 대상, 측정 관중, 측정 변인 등 응용 환경의 제약 조건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 4. 연구 방법별 분석

연구 방법별로, 양적연구 18편, 질적연구 2편, 문헌리뷰 2편, 혼합연구 1편으로 분류하였다. 질적 연구로 수행된 2편의 연구로는 ① 다문화인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한 연구와 ② 도서관이용 후기 작성을 분석한 연구가 있었다. 문헌리뷰로 수행된 2편의 연구로는 ① 도서관 불안 이론의 고찰 연구와 ② 도서관 불안 측정 도구의 고찰 및 타당성 연구가 있었다. 혼합연구 1편을 수행한 연구자는 사서(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도서관 경험노출 항목을 도출하고 대학 도서관 이용교육을 탐색한 후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 대상 23편의 논문 중 양적연구가 18편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 양적연구를 ‘연구대상’, ‘도서관 관중’, ‘측정도구’, ‘독립변인’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혼합연구 한 편은 면담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문조사를 개발하였기에 양적연구로 포함시켰으며, 따라서 총 19편의 양적연구를 분석하였다.

도서관 불안 양적연구에 대한 연구대상별 논문 수의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도서관 불안 양적연구의 연구대상별 논문 수(%)

연구대상	n(%)
대학생	9(47.3%) ※대학생과 대학원생 동시 연구 대상 논문 1편 포함
외국인	3(15.8%)
다문화인	2(10.5%)
지역주민	2(10.5%)
시니어(50세 이상)	1(5.3%)
장애인	1(5.3%)
디지털도서관 이용자	1(5.3%)
계	19(100.0)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9편(47.3%)이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3편에서도 대학생이 모두 연구 대상이었기 때문에 대학생 대상 연구는 총 12편(63.1%)이라 할 수 있다. 대학생 대상의 도서관 불안 연구가 다수인 이유는 도서관 불안 이론의 개발 대상 역시 대학생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 외 다문화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각 2편(10.5%)씩이었으며 특정 연령대인 시니어 대상 연구 1편(5.3%), 장애인 대상 연구 1편(5.3%), 디지털도서관 이용자 대상의 연구 1편(5.3%)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불안 양적연구에 대한 도서관 관종별 논문의 수의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도서관 불안 양적연구의 도서관 관종별 논문 수(%)

도서관 관종	n(%)
대학도서관	10(52.6%)
공공도서관	6(31.5%)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	1(5.3%)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1(5.3%)
디지털도서관	1(5.3%)
계	19(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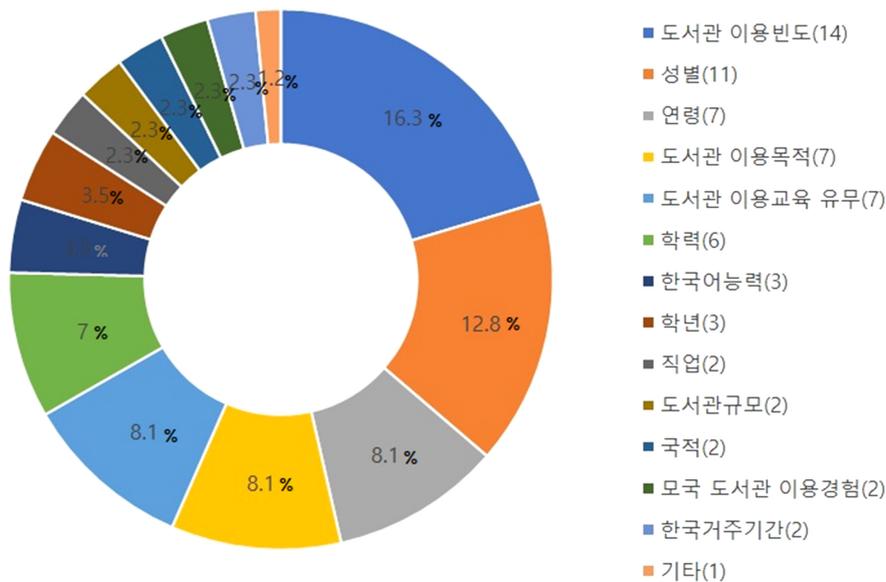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삼은 연구는 10편(52.6%)으로 많았으며 공공도서관 대상 연구는 6편(31.5%),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모두 대상으로 한 연구 1편(5.3%),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을 모두 대상으로 한 연구는 1편(5.3%), 디지털도서관 1편(5.3%)순으로 나타났다.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을 범위로 한 1편의 연구에서는 대학생 이전 9년간 학교생활에서의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이용경험이 대학생 신입생의 대학도서관 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조사되었다.

도서관 불안 양적연구에 대한 도서관 측정도구별 논문의 수의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도서관 불안 양적연구의 도서관 불안 측정도구별 논문 수(%)

도서관 불안 측정 도구	n(%)
LAS	8(42.1%)
KLAS	5(26.3%)
LAS, KLAS	2(10.5%)
LAS, MLAS, KLAS	2(10.5%)
LAS, MLAS	1(5.3%)
DLAS	1(5.3%)
계	19(100.0)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도서관 불안 측정 도구로 LAS, KLAS, MLAS가 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 외에도 DLAS가 한 편의 연구(5.3%)에서 사용되었다. 도구 한 개가 사용된 연구에서 LAS는 8편(42.1%)에서 사용되었으며 KLAS는 5편(26.3%)에서 사용되었다. 도구 두 개가 사용된 연구에서 LAS와 KLAS는 2편(10.5%), LAS와 MLAS는 1편(5.3%)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도구 세 개가 사용된 연구는 2편(10.5%)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불안 연구에서는 LAS와 MLAS 순으로 측정도구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한 개의 측정 도구를 사용한 연구에서는 주로 대학생이 측정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 도서관 불안 측정도구의 개발 대상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들은 주로 LAS 혹은 KLAS만을 활용하였기 때문이며, 이외에 도서관 관중, 연구 대상의 특성 등에 따라 한 개 이상의 도구를 사용해 문항의 수정·보완을 거쳐 활용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도서관 불안 양적연구의 독립변인 키워드 분석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도서관 불안 양적연구의 독립변인 키워드 빈도분석 결과

도서관 불안 양적연구에서 종속변인을 도서관 불안으로 한 독립변인의 키워드 빈도분석 결과, 도서관 이용빈도 14번(16.3%), 성별 11번(12.8%), 연령 7번(8.1%), 도서관 이용목적 7번(8.1%), 도서관 이용교육 유무 7번(8.1%), 학력 6번(7.0%), 한국어능력 3번(3.5%), 국적 3번(3.5%), 학년 2번(2.3%), 직업 2번(2.3%), 도서관규모 2번(2.3%), 모국 도서관 이용경험 2번(2.3%), 한국 거주기간 2번(2.3%), 기타 1번(1.2%) 순으로 나타났다.

5. 연구 결과 분석

각 논문의 연구 결과를 연구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연구 주제별 연구 결과 분석

연구 주제	연구자	연구 결과
집단별 대상의 도서관 불안 측정연구	장혜란, 오의경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 대학도서관 이용자의 도서관 불안 점수 평균은 2.55점으로 Bostick(1992)의 결과보다 도서관 불안 수준이 낮음</li> <li>• 성별, 학년별, 전공계열별, 도서관 이용교육 유무, 도서관 이용빈도에 따라 도서관 불안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li> </ul>
	남태우, 박현영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함</li> <li>• 과제 수행을 위한 도서관에서의 정보 탐색과 도서관의 정책이나 운영 측면에 있어서의 불안이 더 큼</li> <li>• 개가계 및 기기 등의 셀프 운영방식의 변화로 인한 불안, 서가의 제 위치에 없는 책을 찾아 헤매는 경험으로 인한 신뢰성 하락</li> <li>• 온라인 학술 DB와 상호대차서비스 등의 학술자료에 접근하는 방식이 어렵고 복잡하다는 인식</li> </ul>
	김홍렬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주민들은 도서관 지식으로 인한 불안감이 가장 높았음</li> <li>• 성별, 연령, 학력, 도서관 교육프로그램 참여여부, 도서관 이용빈도, 도서관 이용목적에 따라 도서관 불안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li> </ul>
	남영준, 김규환, 최성은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유학생들의 도서관 불안 점수 평균은 2.60점으로 Bostick(1992)의 결과보다 낮고 장혜란, 오의경(2006)의 연구와 비슷한 수치를 보임</li> <li>• 성별, 도서관 이용빈도, 도서관 이용교육 경험, 한국어능력에 따라 도서관 불안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li> </ul>
	장보성, 김은정, 남영준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이용자들의 공공도서관 도서관 불안 점수 평균은 3.1455로 선행연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았음</li> <li>• 연령, 장애유형, 도서관 이용목적, 도서관 이용빈도에 따라 도서관 불안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li> </ul>
	오선혜, 이성숙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니어들의 도서관 불안은 기존의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비교적 높았음</li> <li>• 연령, 학력, 도서관 이용목적, 도서관 이용빈도에 따라 도서관 불안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li> </ul>
	박미향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아시아 국가 청년 정보이용자의 도서관 불안의 평균은 2.52점으로 특히 중국의 청년 정보이용자층이 불안정도가 현저히 높았음</li> <li>• 정보원 선호, 도서관 이용빈도에 따라 도서관 불안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li> <li>• 한국의 이용자들이 관해 디지털 정보에 관한 불안 요소가 비교적 낮았으며 반면 도서관 직원에 대한 심리적 장애요소의 불안감은 높았음</li> </ul>
	장예솔, 김지현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이주여성들의 도서관 불안 평균은 2.91점으로 선행연구와 비교해 높은 편이었음</li> <li>• 한국어 능력, 남편직업, 도서관 이용목적, 도서관 이용빈도, 도서관 거리, 모국경험의 차이에 따라 도서관 불안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li> </ul>
	유지윤, 정동열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이용자의 도서관 불안의 평균 점수는 2.96으로 나타남</li> <li>• 신분, 국적, 도서관 이용교육 유무, 도서관 이용목적, 도서관 이용빈도, 한국어 실력, 한국문화 이해도에 따라 도서관 불안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li> </ul>
	김지선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어적 장벽으로 인한 불안요인은 도서관이용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li> <li>• 도서관 규모, 도서관 이용빈도, 도서관 이용교육 이수 여부, 한국어 능력에 따라 도서관 불안의 차가 존재하였음</li> <li>• 다국어 장서의 부족함, 이용할 만한 도서관 프로그램이 없다는 의견 등이 나타남</li> <li>• 모국과의 차이로 한국 도서관은 근거리에 있어 이용이 쉽다는 의견과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며, 현대적인 시설과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환경이라는 의견을 보임</li> </ul>
	김보일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연령, 학력, 도서관 이용목적, 도서관 이용빈도, 도서관 규모에 따라 도서관 불안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li> </ul>
	김지현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인의 도서관 불안 평균 점수는 2.79로 기존 다문화인 대상 연구들과 비교해 약간 높았음</li> <li>• 연령, 출신지, 도서관 이용빈도, 문화적응에 따라 도서관 불안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li> </ul>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54권 제3호)

연구 주제	연구자	연구 결과
도서관 불안 이론과 기타 변인 간의 상관연구	박현영, 남태우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생들은 도서관 이용교육 후에 도서관 불안이 완화됨</li> <li>• 도서관 이용빈도는 도서관 불안 완화를 위한 도서관 이용교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li> </ul>
	오의경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문학부 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 인지 수준은 3.72점으로 이전 연구와 유사한 수준임</li> <li>• 응답자의 도서관 불안 수준은 2.47점으로 이전 연구보다 점수가 낮았으며 도서관 직원으로 인한 장벽에 의한 불안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li> <li>• 정보활용능력에 대한 인지 수준과 도서관 불안은 상관관계가 있음</li> </ul>
	오의경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신입생들의 도서관 불안 평균은 2.57점으로 이전 연구들과 유사한 수준임</li> <li>• 한국형 BFI 요인 중 많은 답변으로 친화성, 신경증,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 순서를 보였음</li> <li>• 신경증 성향이 강학수록 도서관 불안을 더 느끼며 가장 관계 깊은 도서관 불안 하위 영역은 '도서관의 안락'이었음</li> <li>• '외향성'은 도서관 불안과 전혀 상관이 없음</li> </ul>
	정종기 (2014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도서관 이용자의 도서관 불안 평균은 2.79점으로 Bostick(1992)의 연구보다 약간 높았고 장혜란(2006), 오의경(2011)의 연구보다 높았음</li> <li>• 이용자들이 가장 불안하게 느끼는 영역은 도서관에 관한 지식 장벽이었음</li> <li>• 대학도서관의 불안감 해소에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 대한 인식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었음</li> </ul>
	박덕란, 사공복희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생들의 도서관 불안 점수는 약 2.91로 Bostick(1992)과 장혜란·오의경(2006)에 비해 약간 높았음</li> <li>• 도서관 이용빈도, 스마트폰 이용행태에 따라 도서관 불안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li> <li>• 대학생들의 컴퓨터에 대한 태도는 2.96으로 Mizrachi와 Shoham(2004)의 2.58보다 비교적 높았음</li> <li>• 도서관 이용빈도에 따라 컴퓨터불안 지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li> <li>• 컴퓨터에 대한 태도와 도서관 불안요소들은 강하지는 않지만 서로 상관관계에 있음</li> </ul>
	정종기 (2014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도서관 이용자의 도서관 불안 평균은 2.79점으로 Bostick(1992)의 연구보다 약간 높았고 장혜란(2006), 오의경(2011)의 연구보다 높았음</li> <li>• 이용자들이 가장 불안하게 느끼는 영역은 도서관에 관한 지식 장벽이었음</li> <li>• 출신 학교소재지, 사서(교사) 유무, 도서관 이용교육 경험, 도서관 이용빈도, 도서관 활용수업 경험에 따라 도서관 불안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li> <li>• 대학도서관의 불안감 해소에는 학교도서관의 경험 노출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li> </ul>
	이경화, 노영희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의 물리적·환경적 요인, 도서관 자료 검색 및 선정, 도서관 비대면 서비스의 디지털 정보시스템, 비대면 서비스의 사서(직원) 요인, 비대면 서비스의 심리·정서적 요인, 성별, 학년은 도서관 불안 요인에 영향을 주었음</li> <li>• 모든 요인에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가장 높은 활성화를 요구하는 것은 대학원생임을 발견함</li> </ul>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성 관련 연구	권나현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도서관 환경에서 디지털 참고서비스의 등장, 도서관 원격서비스의 확대 등의 예시로 그 변화가 도서관 불안 및 관련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음</li> <li>• '도서관 불안'은 '정보불안' 혹은 '정보이용불안'으로 확대 연구되어야 함</li> <li>• 불안의 내적, 외적 요인을 이용자의 정보추구 전 과정을 통해 밝혀내고 그에 맞는 도구 개발 등이 요구됨</li> </ul>
	박현영, 남태우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 불안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li> <li>•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LAS가 개발되었으며, 척도는 6요소(물리적·환경적 요소, 도서관 이용 및 지식 요소, 과제 및 연구 요소, 디지털 정보 요소, 도서관 직원에 관한 요소, 심리적·정서적 요소 등) 40문항으로 구성됨</li> <li>• 도서관 직원에 관한 요소 외에 요소별로(도서관의 규모, 성별, 학업연한, 도서관 이용빈도 등) 2개 이상의 변인간의 상관관계 있음을 검증함</li> </ul>
	박주범, 정동열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도서관 불안의 개념과 하위영역을 정의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갖춘 DLAS를 개발함</li> </ul>
도서관 불안 이론 연구	남태우, 황옥경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불안이론 고찰을 통해 사회학습이론에서의 자기효능감, 인본주의의 자아개념, 방해모형이론, 상태-특성불안이론 등이 도서관 불안의 이론적 근거가 있음을 제시</li> <li>•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 도서관 불안 관련 요인, 증상, 도서관 이용교육 혹은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의 관계, 해소방안 등의 고찰</li> </ul>

〈표 7〉에 제시된 ‘집단별 대상의 도서관 불안 측정 연구’의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선정된 독립변인(성별, 연령, 학년, 한국어 능력, 도서관 이용빈도, 도서관 이용교육 유무, 도서관 이용 목적 등)은 대체적으로 도서관 불안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이들 연구들은 도서관 불안 평균 점수를 측정한 후 Bostick과 다른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도서관 불안 평균 점수와 비교를 하였다. 시니어와 결혼이주여성 포함 다문화인의 도서관 불안 평균 점수는 각 대상의 기존 연구 결과에 비해 높았으며 반면 장애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도서관에서의 도서관 불안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 동일한 연구대상의 경우라도 설정된 변수 및 기타 요인에 따라 현저히 다른 도서관 불안의 평균 점수를 보였다. 예시로 대학도서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남영준, 김규환, 최성은(2010)의 연구에서 도서관 불안 점수 평균은 2.60점이었으며, 이와 비교해 유지윤, 정동열(2020)의 연구에서는 더 높은 2.96점을 보였다. 또한, 집단별 대상의 도서관 불안 측정을 위한 연구는 응용연구로서 측정 대상의 다양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특징이 있었다.

‘도서관 불안 이론과 기타 변인 간의 상관연구’ 7편의 경우 모두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도서관 불안과 기타 변인(도서관 이용교육, 정보활용능력 인지 수준, 성격 유형,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인식 수준, 컴퓨터 태도, 도서관 노출경험, 비대면 서비스)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은 도서관 이용교육 이수 후에 도서관 불안이 완화되었고(박현영, 남태우, 2007), 인문학부 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에 대한 인지 수준은 도서관 불안과 상관관계가 있었으며(오의경, 2011),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격 유형의 한국형 BFI와 도서관 불안은 대부분 상관이 있었다(오의경, 2012). 또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과 대학도서관 이용자의 도서관 불안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정중기, 2014a). 대학생들의 컴퓨터에 대한 태도와 도서관 불안 요소들은 강하지는 않지만 상관관계가 있었으며(박덕란, 사공복희, 2015), 도서관 이용자의 도서관 노출경험(도서관 이용교육 경험, 도서관 이용빈도, 도서관 활용수업 경험, 사서(교사) 유무, 출신 학교소재지 등)과 도서관 불안은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특히 대학도서관의 불안감 해소에는 학교도서관의 경험 노출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정중기, 2014b).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가 도서관 불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요인과 도서관 불안은 상관관계가 있었다(이경화, 노영희, 2022).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성 관련 연구’ 3편을 분석한 결과, 디지털 도서관 환경에서의 도서관 이용 행태변화를 고려하였을 때, Bostick(1992)의 LAS 문항을 약간 수정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을 것이므로 정보이용불안척도 ILAS(Information Literacy Anxiety Scale 또는 Information Seeking Anxiety Scale)라고 명명할 수 있는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권나현, 2004). 이외에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KLAS(박현영, 남태우, 2006)와 디지털 이용자 대상 기반의 DLAS가 개발되었다(박주범, 정동열, 2010).

‘도서관 불안 이론 연구’ 1편에서는, 일반불안이론 고찰을 통해 도서관 불안이 사회학습이론에서의 자기효능감, 인본주의의 자아개념, 방해모형이론, 상태-특성불안이론 등에 근거를 두고 있음이 제시되었으며, 도서관 불안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 도서관 불안 관련 요인, 증상, 도서관 이용교육 혹은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의 관계, 해소방안 등이 고찰되었다(남태우, 황옥경, 2005).

##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국내의 도서관 불안 관련 연구의 경향을 체계적 문헌고찰 방식으로 분석하여 후속 연구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PRISMA의 문헌선정 흐름도에 따라 최종적으로 23편의 학회지 논문을 선정 후 이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연구 주제에서 집단별 대상의 도서관 불안 측정 연구가 12편(52.2%)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도서관 불안 이론 자체를 주제로 분석한 연구는 1편(4.4%)으로 저조하였다. 도서관 불안 자체의 이론 연구는 한편이 유일하기 때문에 추후 연구를 통해 도서관 불안의 이론적인 고찰 및 범위 재지정 등 심층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며, 도서관 불안의 측정연구에서 쓰이는 도서관 불안 측정도구가 대상과 특성의 측면에서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측정 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에 관한 검토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분석 대상을 다양화해야 하며 도서관 불안 변수와 보다 다양한 변수와의 관계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 유형에서 기초연구보다 응용연구가 주로 사용되었다. 구체적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도서관 불안을 측정한 후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한 응용연구는 연구의 설계가 구체적이며 실용적인 내용이지만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도서관 불안에 대한 응용연구 역시 측정 대상, 측정 관중, 측정 변인 등 응용 환경의 제약 조건에 따라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일반적인 특징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 방법으로는 양적연구가 주로 사용되었다. 연구대상별, 도서관 관중별, 측정도구별, 독립변인 키워드 빈도분석 결과, ① 외국인을 포함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12편(63.1%), 대학도서관만을 대상으로 삼은 연구는 10편(52.6%)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도서관 불안 이론의 개발 대상 역시 대학생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도서관 불안의 측정 대상이 대학생으로 국한되지 않고 신뢰성 있는 다양화된 도서관 불안 대상의 확대를 위해서는 도서관 불안의 개념 확장 및 대상별 도서관 불안 측정도구 개발이 요구된다. ② LAS, MLAS 순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LAS만을 사용한 연구는 8편(42.1%)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서 주로 LAS 혹은 KLAS가 활용되었기 때문이며, 이외에 도서관 관중, 연구

대상의 특성 등에 따라 한 개 이상의 수정된 도구가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③ 독립변인으로 '도서관 이용빈도'(14번, 16.3%), '성별'(11번, 12.6%), '연령'(7번, 8.0%) 순으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도서관 불안과 기타 특별한 변인 간 관계 이외 연구는 분석에 있어서 비슷한 독립변인이 설정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도서관 불안 이론과 관련해 주제에 따른 다양한 연구 방법을 사용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특정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관찰, 그리고 보고서 작성 등 질적연구로 도서관 불안 측정 및 도서관 불안 측정 도구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혼합연구를 사용하여 방법론적으로 연구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연구결과의 연구 주제별 분석이다. 대체적으로 도서관 불안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결과가 나타났다. 연구에서 측정된 도서관 불안 평균 점수는 Bostick의 연구에서 제시된 평균 점수나 그 밖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균 점수와 비교되었다. 동일한 연구대상의 경우라도 설정된 변수 및 기타 요인에 따라 현저히 다른 도서관 불안의 평균 점수를 보였으며 집단별 대상의 도서관 불안 측정을 위한 연구는 응용연구로서 측정 대상의 다양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특징이 있었다. 집단별 대상의 도서관 불안 측정연구는 비교적 연구의 대상을 다양화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측정도구 개발과 그에 대한 타당성 관련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기에 대상별로 이루어진 도서관 불안의 측정이 신뢰성이 있을까 하는 점에 의문이 든다. 또한, 도서관 불안의 개념을 정보불안으로 확대하고 불안의 내·외적 요인을 밝혀 대상별 맞춤형 도구 개발과 관중별 도서관 불안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도서관 불안 연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발행 연도별, 연구 주제별, 연구 유형별, 연구 방법별 등으로 구분지어 도서관 불안 연구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도서관 불안 관련 연구의 동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부문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적하여 추후 이뤄졌으면 하는 도서관 불안 연구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공공도서관 이용 확대는 책과 밀접한 환경이 주는 긍정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용자는 다양한 지식자원을 제공받고 여가 및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으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도서관 불안 해소를 공공도서관 이용 확대와 연계하여 관련 연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측정 대상 범위(정보취약계층, 연령별 이용자 등)를 확대할 수 있는 도서관 불안 측정 도구가 개발되어 적용범위의 제한을 줄일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 서비스 연구를 통해 시민의 공공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민이 자신의 삶을 위로받고 치유하는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 6. 24.). 최근 5년(2017~2021년)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료현황 분석.  
출처: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1000100&brdScnBltno=4&brdBltno=10627>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2023. 8. 7.). 출처: <https://www.libsta.go.kr/statistics/public/main>
- 권나현 (2004). 디지털 도서관에서의 도서관불안과 측정도구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2), 29-47.
- 김미란, 유원경, 임현수 (2011). 아스퍼거 증후군의 마음이론 연구 동향 분석: 1996-2011년 국내외 학술지 수록 문헌을 중심으로. 자폐성 장애연구, 11(3), 67-92.
- 김보일 (2021).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도서관불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5(4), 23-43.  
<https://doi.org/10.4275/KSLIS.2021.55.4.023>
- 김지선 (2021). 다문화 이용자의 도서관불안 사례 연구: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4(1), 7-55.
- 김지현 (2022). 다문화인의 도서관 이용 향상 방안 연구: 도서관 불안과 문화적응 측정을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12(2), 35-61. <https://doi.org/10.21286/jps.2022.05.12.2.35>
- 김홍렬 (2008). 지역주민들의 도서관불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4), 461-478.  
<https://doi.org/10.16981/kliss.39.4.200812.461>
- 남영준, 김규환, 최성은 (2010). 외국인 유학생의 도서관불안에 관한 연구: C대학도서관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4), 313-332.  
<https://doi.org/10.16981/kliss.41.4.201012.313>
- 남태우, 박현영 (2006).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도서관불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1), 151-168.
- 남태우, 황옥경 (2005). 도서관불안 이론의 고찰. 정보관리학회지, 22(3), 71-84.  
<https://doi.org/10.3743/KOSIM.2005.22.3.071>
- 노영희, 김윤정 (2020). 사례 분석을 통한 도서관의 치유프로그램 및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7(1), 79-106. <https://doi.org/10.3743/KOSIM.2020.37.1.079>
- 박덕란, 사공복희 (2015). 대학생들의 도서관 불안과 컴퓨터 태도와의 상관관계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1), 303-322. <https://doi.org/10.14699/kbiblia.2015.26.1.303>
- 박미향 (2015). 동아시아 청년층 정보이용자의 도서관불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3), 253-272. <https://doi.org/10.4275/KSLIS.2015.49.3.253>
- 박영애 (2023. 6. 16.). 지역단위 도서관 정책의 힘. 2023 한국도서관·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

전남대학교, 광주.

- 박주범, 정동열 (2010). 디지털도서관 불안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4), 353-371. <https://doi.org/10.4275/KSLIS.2010.44.4.353>
- 박창균 (2020). 동물매개 독서교육의 가능성과 시사점. 국어교육연구, 73, 215-244. <https://doi.org/10.17247/jkille.2020..73.215>
- 박현영, 남태우 (2006). 도서관불안척도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3), 99-120.
- 박현영, 남태우 (2007). 대학생의 도서관불안 완화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1), 411-429.
- 오선혜, 이성숙 (2012). 공공도서관 시니어 이용자의 도서관불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1), 257-276.
- 오의경 (2011). 정보활용능력 인지 수준과 도서관 불안 간의 관계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4), 123-137. <https://doi.org/10.4275/KSLIS.2011.45.4.123>
- 오의경 (2012). 도서관 불안과 성격 유형의 상관관계 분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2), 199-217. <https://doi.org/10.4275/KSLIS.2012.46.2.199>
- 유지윤, 정동열 (2020). 대학도서관 외국인 이용자의 도서관불안의 특성과 해소방안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1(1), 21-42. <https://doi.org/10.14699/kbiblia.2020.31.1.021>
- 이경화, 노영희 (2022). 비대면 서비스가 도서관 불안해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K대학도서관 이용자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9(1), 17-44. <https://doi.org/10.3743/KOSIM.2022.39.1.017>
- 장보성, 김은정, 남영준 (2010). 장애인 이용자의 도서관불안 측정과 분석: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3), 309-327. <https://doi.org/10.16981/kliss.41.3.201009.309>
- 장예술, 김지현 (2016). 결혼이주여성의 도서관 불안 측정과 분석: 광주광역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3(3), 195-217. <https://doi.org/10.3743/KOSIM.2016.33.3.195>
- 정종기 (2014a). 대학도서관 이용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인식 수준과 도서관 불안감간 관계 분석. 인문학논총, 34, 343-363.
- 정종기 (2014b). 도서관 이용자의 도서관 노출경험이 도서관 불안에 미치는 영향: 대학 신입생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1), 271-296. <https://doi.org/10.16981/kliss.45.1.201403.271>
- 장혜란, 오의경 (2006). 대학도서관 이용자의 도서관불안 측정과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23(3), 205-222. <https://doi.org/10.3743/KOSIM.2006.23.3.205>
- 주소현, 이수상 (2021). 초등학생의 읽기이해력 향상 중재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2(3), 197-215. <https://doi.org/10.16981/kliss.52.3.202109.197>
- 한국도서관협회 (2010). 문헌정보학용어사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의료연구원 (2011). NECA 체계적 문헌고찰 매뉴얼.

- Bostick, S. L. (1992).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library anxiety scale. Doctoral dissertation. Wayne State University, United States.
- Cigna (2018). 2018 Cigna 360° Well-Being Survey. Available:  
[https://www.securemediaresource.com/sites/default/files/Public/Email/Cigna\\_360WellbeingSurvey.pdf](https://www.securemediaresource.com/sites/default/files/Public/Email/Cigna_360WellbeingSurvey.pdf)
- Free, D. (2014, Jun 3). College & Research Libraries 75th anniversary issue article selections announced.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vailable:  
<https://www.ala.org/news/press-releases/2014/06/college-research-libraries-75th-anniversary-issue-article-selections>
- Mellon, C. A. (1986). Library Anxiety: A grounded Theory and its Development.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47, 160-165. <https://doi.org/10.5860/crl.76.3.276>
- Neuman, W. L. (2014). *Social Reserach Methods: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Essex, UK: Pearson.
- OECD.Stat (2023). Health Status: Causes of mortality. Available: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30115>
- Onwuegbuzie, A. J., Jiao, Q. G., & Bostick, S. L. (2004) *Library Anxiety: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MD: Scarecrow Press.
- PRISMA. (2023, Aug 17). Available: <http://www.prisma-statement.org/>
- Reitz, J. M. (2004). *Dictionar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London: Libraries Unlimited.
- Van Kampen, D. J. (2004).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multidimensional library anxiety scale.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65(1), 28-34.  
<https://doi.org/10.5860/crl.65.1.28>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ang, Hye-Rhan & Oh, Eui-Kyung (2006). Measurement and analysis of the library anxiety among academic library us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3(3), 205-222. <https://doi.org/10.3743/KOSIM.2006.23.3.205>
-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22, Jun 24). Analysis of depression and anxiety disorder care over the past five years (2017-2021). Available: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41000100&brdScnBltno=4&brdBltNo=10627>

- Jang, Bo-Seong, Kim, Eun-Jeong, & Nam, Young-Joon (2010). Measurement and analysis of library anxiety among library handicapped user.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3), 309-327. <https://doi.org/10.16981/kliss.41.3.201009.309>
- Jang, Ye-Sol & Kim, Ji-Hyun (2016). A study on library anxiety measurement and analysis of married immigrant women: focused on public libraries in Gwangju.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3(3), 195-217. <https://doi.org/10.3743/KOSIM.2016.33.3.195>
- Joo, So-Hyun & Lee, Soo-Sang (2021). Systematic review of an intervention program for the improved reading comprehens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2(3), 197-215. <https://doi.org/10.16981/kliss.52.3.202109.197>
- Jung, Jong-Kee (2014a). An analysis on relationship between self cognition level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library anxiety. *Humanities Research Institute*, 34, 343-363.
- Jung, Jong-Kee (2014b). A study on the impact of library exposure experience to freshmen's academic library anxiety in South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1), 271-296. <https://doi.org/10.16981/kliss.45.1.201403.271>
- Kim, Bo-il (2021). A study on library anxiety of public library us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5(4), 23-43. <https://doi.org/10.4275/KSLIS.2021.55.4.023>
- Kim, Hong-Ryul (2008). A study on the library anxiety of public library user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4), 461-478. <https://doi.org/10.16981/kliss.39.4.200812.461>
- Kim, Ji-Hyun (2022).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ibrary use of multicultural people: focusing on measuring library anxiety and cultural adaptation. *Journal of Public Society*, 12(2), 35-61. <https://doi.org/10.21286/jps.2022.05.12.2.35>
- Kim, Ji-Sun (2021). A case study on the library anxiety of multicultural users: focused on the public libraries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Journal of Social Sciences*, 14(1), 7-55.
- Kim, Mi-Ran, Yoo, Won-Kyung, & Lim, Hyun-Su (2011). A research synthesis of theory of mind for Asperger syndrom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Persons with Autism*, 11(3), 67-92.

- Korea Library Association (2010). Diction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eoul: Korea Library Association.
- Kwon, Na-Hyun (2004). Library anxiety and library anxiety scale in the digital library environ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8(2), 29-47.
- Lee, Kyung-Hwa & Noh, Young-Hee (2022). A study on the effect of non-face-to-face service on relieving library anxie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9(1), 17-44. <https://doi.org/10.3743/KOSIM.2022.39.1.017>
- Nam, Tae-Woo & Hwang, Ok-Gyung (2005). A study on the library anxie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2(3), 71-84. <https://doi.org/10.3743/KOSIM.2005.22.3.071>
- Nam, Tae-Woo & Park, Hyun-Young (2006). A study on library anxiety of domestic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7(1), 151-168.
- Nam, Young-Joon, Kim, Gyuh-wan, & Choi, Sung-Eun (2010). Research on library anxiety of foreign students in Korea: concentrated on the cau library user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4), 313-332. <https://doi.org/10.16981/kliss.41.4.201012.313>
-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2011). NECA's Guidance for Undertaking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for Intervention.
- National Library Statistics System. (2023, Aug 7). Available: <https://www.libsta.go.kr/statistics/public/main>
- Noh, Young-hee & Kim, Yoon-Jeong (2020). Research about the library healing program and service activation plan research through case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7(1), 79-106. <http://dx.doi.org/10.3743/KOSIM.2020.37.1.07>
- Oh, Eui-Kyung (2011). An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self-cognition level of information literacy and library anxie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4), 123-137. <https://doi.org/10.4275/KSLIS.2011.45.4.123>
- Oh, Eui-Kyung (2012). A study on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library anxiety and personality trai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6(2), 199-217. <https://doi.org/10.4275/KSLIS.2012.46.2.199>

- Oh, Sun-Hye & Lee, Sung-Sook (2012). A study on the library anxiety of public library senior user.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1), 257-276.
- Park, Chang-gyoon (2020). The possibilities and implications of animal-assisted reading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Education*, 73, 215-244.
- Park, Duk-ran & Sakong, Bok-hee (201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ibrary anxiety and computer attitude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6(1), 303-322.  
<https://doi.org/10.14699/kbiblia.2015.26.1.303>
- Park, Hyun-Young & Nam, Tae-Woo (2006).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ibrary anxiety scal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0(3), 99-120.
- Park, Hyun-Young & Nam, Tae-Woo (2007). A study on easing library anxiety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1(1), 411-429.
- Park, Joo-Bum & Jeong Dong-Youl (2010).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digital library anxiety scal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4(4), 353-371. <https://doi.org/10.4275/KSLIS.2010.44.4.353>
- Park, Mi-Hyang (2015). The library anxiety of information users in their 20s in East-Asi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9(3), 253-272.  
<https://doi.org/10.4275/KSLIS.2015.49.3.253>
- Park, Young-Yae (2023, Jun 16). The Power of Local Library Policy. The 2023 Spring Conference of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 Yoo, Ji-yoon & Jeong, Dong-Youl (2020). A study on traits and remedy of library anxiety among international users in academic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1(1), 21-42.  
<https://doi.org/10.14699/kbiblia.2020.31.1.021>

